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차 회의 회의록

2007. 5. 2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1. 일시 : 2007년 5월 28일 (월요일) 17:00 - 19:00

2.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3. 참가자 (가나다 순)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고철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문환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박재영 경상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희승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사무관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전성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조정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주철기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前 주 프랑스 대사)
한우정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직원 다수

4. 진행순서

17:00 - 17:05 인사말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7:05 - 17:10 참가자 소개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7:10 - 17:40 주제발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진출 및 향후 활동전략'
(발제 : 김문환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17:40 - 18:55 주제 토론 (사회 :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8:55 - 19:00 맺음말
19:20 - 21:00 만찬 (로얄호텔 2층 일식당 '기꾸')

5. 주요 내용

가. 인사말 (이삼열 사무총장)

포럼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유네스코 조직 내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이처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의 필요성 강조. 특히 제

3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집행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 외에도 이사국 진출 이후 한국이 수행해야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함.

나. 주제발표 (김문환 과장)

오늘날 국제사회 및 국제관계에 있어 연성권력 (Soft Power)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부 내에서도 우리의 연성권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네스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4년 임기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이미 지난 2월 27일 우리의 입후보를 유네스코에 통보한 상태이며, 5월28일 현재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에 입후보한 20여개 여타 국가와 상호지지를 한 상태임.

선거전략과 관련, 올해 8월말부터 적극적인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며, 여타 국제기구와의 교환지지, 주 유네스코 대표부 차원에서의 현지교섭, 입장 미정국 및 호의적 고려국을 대상으로 각국 수도교섭 및 필요시 주한공관을 활용한 교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서한 발송 등 비정부간 차원에서의 교섭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선거 전망과 관련, 한국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진출을 낙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득표로 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국가 외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네스코 대표부 재개설'을 통해 집행이사국 진출 이후 보다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펼칠 계획이며,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한국인의 유네스코 사무국 진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력의 대표부 진출, 우리나라 출판,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보급 및 홍보 활동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끝으로, 유네스코 총회 산하 정부간기구 입후보 추진과 관련, 올해로 임기가 종료되는 MAB과 IGBC의 재진출 외에도 IHP 및 IFAP 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다. 주제토론

- 정우탁 실장 : 한국은 유네스코 정규예산 분담금 순위 11위의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유네스코 조직

내에서 수행해오지 못해온 점, IMF 이후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축소와 한국의 소극적인 유네스코 활동 참여,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대 유네스코 협력메커니즘에 기인한 문제 등이 상존함. 이러한 상황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음.

- 이삼열 사무총장 : 집행이사국 진출 전략과 관련, 많은 득표로 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장 현장에서의 입장 미정국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활동이 중요함.
- 주철기 대사 : 선거장 현장에서의 득표활동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낙관함. 또한 인도, 중국,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네스코의 실질적인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기를 희망함.
- 정우탁 실장 : 우리나라도 인도, 중국, 일본과 함께 유네스코의 실질적인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해야할 위치에 있음.
- 김문환 과장 : 집행이사국 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유네스코 총회 주요 선거 직전에 현지 공관장 주최 소규모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임. 한편,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문화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함.
- 이삼열 사무총장 :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 회원국 대표 전체를 초대하는 대규모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득표활동은 물론 이후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주철기 대사 : 과거 총회의 경우 수석대표의 파리 체류기간이 짧았던 것도 우리나라 수석대표 주최 리셉션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음. 수석대표 주최 리셉션의 긍정적 효과에 동의하며 리셉션 장소 사전 예약의 필요성을 언급함.
- 김문환 과장 : 수석대표 리셉션 개최문제는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기로 함.

- 강대근 원장 :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와 유네스코 조직 내 한국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네스코활동들이 얼마나 국내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 논의도 필요함.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국내의 활발한 유네스코 활동의 지원을 받아야 함.
- 이승환 본부장 : 집행이사회 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 이후 효과적인 활동 방안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그룹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들이 확보되어야 하며, 유네스코 사무국의 고위직에 보다 많은 한국인이 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김문환 :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엔기구에 우리나라 국민을 진출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에 진출한 한국인의 수가 적은 이유의 하나는 언어(불어)문제에 있음. 한편 외교통상부는 현재 대전의 '세계과학도시연합' (WTA)의 유네스코 Category II 지위획득을 위해 노력 중임.
- 이삼열 : WTA 유네스코 Category II 기구로의 설립추진 노력 및 문화재청에서 준비 중인 무형문화센터 설립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 피력함.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 건은 물론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있어 관련 정부부처 간,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에 바탕을 두길 희망함.
- 김문환 과장 : WTA의 경우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함. 한편 WTA 유네스코 Category II 신청 관련 유네스코 본부의 실사단이 방한할 예정인 바, 관련 정부부처들과 필요한 협의를 할 계획임을 밝힘.
- 박재영 교수 : WTA는 지방 정부간 국제조직으로서, 정부간 기구인 유네스코와 협력을 맺게 된다면 새로운 협력형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봄. 한편 유네스코와 국내 NGO간의 협력관계 촉진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정우탁 실장 : 국내 지방정부, NGO, 단체 등이 유네스코와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협의를 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관 간 협력분야가 중복되거나 재원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오늘 같은 정보 교류 및 공유의 장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 이후의 활동 전략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행정위원회 전문가 그룹' 등 핵심 그룹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함.
- 주철기 대사 : 우리나라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개혁 노력에도 일조하고, 유엔 기구의 하나로서 유네스코의 가시성 및 위상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함. 둘째로, 유네스코 대표부의 독립공관화가 반드시 필요함. 셋째, 집행이사회 산하 주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함. 넷째, 주요 관심분야 위원회에 대표로 파견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다섯째, 유네스코 총회에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준비해야 함. 끝으로 역량 있는 개인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한 한국인의 사무국 진출 확대를 꾀해야 함.
- 정우탁 실장 : 대표부 독립공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의 진척상황에 대해 문의함.
- 김문환 과장 : 현재 외교통상부 조직개편안이 마무리 준비단계에 있으며, 개편안에 따르면 해외공관을 실질적 수요에 따라 늘일 계획임. 특히, 외교부 국제기구국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대표부 독립공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삼열 사무총장 : 유네스코 독립공관화는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집행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장기간 유네스코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 유석진 교수 : 대 유네스코 전략과 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내

조직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함. 먼저 대 유네스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왜 유네스코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준비되어야 함. 둘째로, 현재 유네스코와의 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과정 상의 문제와 협조 체재 상의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나도선 이사장 :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함. 이러한 좋은 취지의 계획과 정보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는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위위원, 국민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대상 심포지움 개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고철환 교수 : 집행이사국 진출, 과정, 방법 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관련 기본 자료들을 잘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이사국 진출의 로드맵, 방향,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함.
- 서유미 과장 : 현재 유네스코 사업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으며 유네스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력할 것임.
- 박재영 교수 : 유네스코 활동의 홍보 방안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 모의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 이삼열 사무총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경우 여타 회원국의 국가위원회보다 규모 및 진행하는 사업의 수는 월등히 크지만 활동의 국제적 파급력은 미미함. 유네스코 주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 유네스코 협력사업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아울러 대 국민 유네스코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조직의 가시성 증진이 필요함.